

대구주보

성모 승천 대축일

2011. 8. 15. (가해) | 제1742호



성모 승천 대축일

복되십니다, 믿으신 분



하성호 사도요한 신부 | 교구 사무처장

“과학이 인간에 종사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과학에 종사하는가?” 이탈리아의 한 추기경님께서 현대인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 같으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인간이 과학을 지배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휴대폰과 인터넷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런 도구들에 우리 삶이 얽매여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하도 세상살이를 좌지우지하다보니, 마치 그것이 만사의 중심이거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삶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하느님께서 태초로부터 마련하신 우리 구원의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 사람들의 편리에 맞게 조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느님 구원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비가 바로 과학의 토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잔뜩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기본이 되고 중요한데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세속화’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가장 중하게 여기지 않고 어느덧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세속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뜻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새삼 깨우쳐줍니다. 우리를 앞서 하늘에 오르신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어떤 운명으로 부르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오늘 제2독서인 1코린 15,22) 이것이 바로 ‘신비’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하신 영광을 앞서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하신 겸손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하신 순종으로 얻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성모님을 두고 엘리사벳 성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 신앙의 신비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마태 8,13)

현재 사도좌에 시복·시성을 청하고 있는 백스물네 분 가운데는 우리 교구 내에서 치명하신 20분의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시복시성을 주님께 청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부여 주셨던 사랑을 우리 마음에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미사

▲ 입당송

마리아아님, 당신은 오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이 오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개선하셨습니다, 저희 모두 어머니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 제1독서 [1역대 15,3-4.15-16; 16,1-2]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화답송

- ◎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당신이 권능의 궤와 함께 드소서.
-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 우리는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 발판 앞에 엎드리세. ◎
-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 중 다윗을 보시어,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 제2독서 [1코린 15,54-57]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1,27-28]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 영성체송 [루카 11,27 참조]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는 복되시나이다.

성모 승천 대축일

▲ 입당송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 제1독서 [묵시 11,19-; 12,1-6-; 10-; 1-]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화답송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 당신의 사랑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 는구나. ◎

▲ 제2독서 [1코린 15,20-27-]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영성체송 [루카 1,48-49 참조]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약기(바오로) 011-514-3855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이준엽 · 김영섭(베드로) 외 2인
들안길 배거리 ~ 황금성당 사이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IFS-아이리식, 알티산, 백내장수술
의학박사 원장 박종원 (소시모)
현 연세대의료교수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626-8881~5

이연재 맥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예력)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수맥 흡(돌)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밝은눈안과

원장 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엘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맥내장 · 라식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 앞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 원장: 정순우 (요셉)
범여대(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출구)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위치: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